논어 14편 헌문 19장 · 원문·풀이

公叔文子之臣大夫僎，與文子同升諸公。子聞之曰：「可以爲文矣！」

독음 · 공숙문자지신대부선 여문자동승저공 자문지왈 가이위문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숙문자가 자기 가신을 자신과 나란히 조정에 올린 일을 두고 문이라는 시호에 걸맞다고 칭찬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公 공변될 공 공 / 叔 아재비 숙 숙 / 文 무늬 문 문 / 子 아들 자

之 갈 지 / 臣 신하 신 신 / 大 클 대 대 / 夫 지아비 부 부

僎 갖출 선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同 같을 동 동 / 升 되 승 승

諸 모든 제 제 / 聞 들을 문 문 / 曰 가로 왈 / 可 옳을 가 가

以 써 이 이 / 爲 할 위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